

위원회 : 국제연합군축위원회
화학무기의 개발 및 사용금지 관한 논의

1. 국제연합군축위원회 소개



국제연합군축위원회의 탄생 배경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진영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국제연합군축위원회를 두어 군비 축소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기구는 약 26년 동안 실질적으로 마땅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존속만 하였다. 그러나 1978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제 1차 국제연합군축특종을 통해 국제연합군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동서 진영의 긴장 완화가 주요 주제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핵무기 확산 금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연합군축위원회의 구성과 진행방법

국제연합군축위원회의 경우 군축과 관련된 사안 중 3개의 주요한 의제를 3년간 논의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국제연합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5년에 열렸던 회의에서 제 1 회기 “이란 및 북한 등 지역이슈”, 제 2회기 “우주 안보”, 제 3회기 “핵안보” 라는 의제로 진행되었다. 국제연합군축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월부터 5월경 미국 뉴욕에서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회의는 본회의와 실무그룹 회의로 구분되며 의제별 심의 기한은 3년이다.

2. 의제선정배경

화학무기란 화학작용에 의해 인간/동물 등을 살상하는 화학물질이나 관련장치로 일반적으로 독가스라고도 한다. 이러한 화학무기는 1차세계대전 당시에 유독가스 형태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화학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효율성도 대단해서 양 진영에서 마구잡이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1925년 전시에 질식 및 독성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를 체결했지만 국지적으로 발효되어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1980년대에 UN에서 화학무기금지 문제를 우선 협상과제로 선정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화학무기 감축을 위한 양자회의를 시작하였으며 UN 군축회의에서는 화학무기감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약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런 협상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다가 1991년 미국이 일방적인 화학무기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협상은 다시 가속화되었다.

개발 관련으로는 1차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1차때보다 더욱 강력한 가스의 연구가 각국에서 실시되었지만 대량살상의 염려가 높아서 사용이 억제되게 되어서 개발이 중지되었다. 그 후 이란-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 등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국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무기는 비인도적무기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를 막을 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의제를 선정하였다.

3. 현재상황 및 실태

시리아 내전

시리아는 2013년 9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들에서 반군과 시민을 화학무기로 공격해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은 직후였다. 미국 등 서방이 보복공격에 나설 태세였지만 러시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국제적 통제에 맡기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군사개입을 하지 않는 제안이다.

이후 국제기구는 아사드 정권이 신고한 1천300톤의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거나 국외 반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은 계속됐다.

OPCW 시리아 팩트파인딩팀(FFM)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공동조사조사메커니즘(JIM)은 2013년 9월~2018년 4월 사이에 시리아에서 37차례에 걸쳐 "화학물질이 관련됐거나 관련됐을 수 있는" 공격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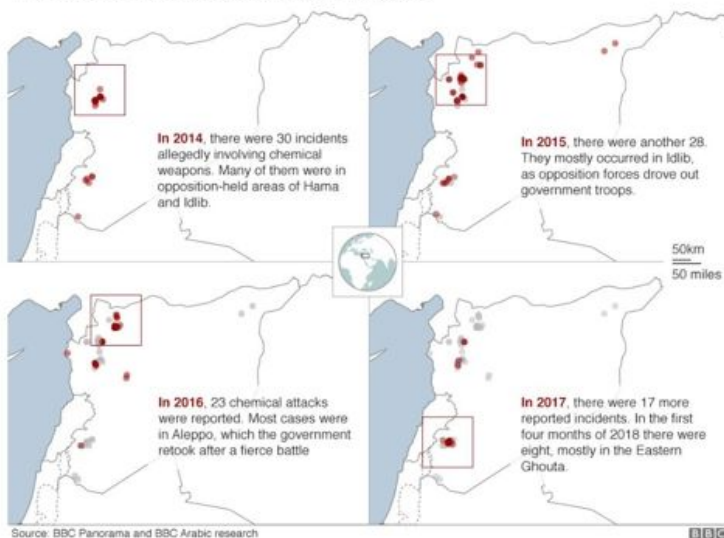
하지만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시리아미국의료협회'(SAMS)는 내전이 발발한 이래 시리아에서 2015년 12월까지 최소한 161차례에 걸쳐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다는 보고서를 내놔다. 이로 인해 1천491명이 사망하고 1만4천581명이 다쳤다는 수치를 내놔다. BBC는

2013년 9월 아사드 정권이 CWC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164차례의 보고들을 검증했다. 이들 보고는 국제기구, 인권단체, 의료기관, 싱크탱크 등에서 나온 것들이다. BBC 탐사보도팀은 독립적 분석가들의 도움으로 이들 보고를 분석한 뒤 "최소 106건에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시리아에서 독가스로 인해 두 쌍둥이를 잃은 아버지
- 시리아 반군지역에 화학무기 공격 상황

The 106 attacks took place over four years



Karen Pierce, the United Kingdom'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in New York, described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Syria as "vile".

-연도별 시리아 화학무기 발생 건수

연도별로는 2014년에 30건이 있었고 대부분 반군 지역인 하마와 이들리브에서 발생했다. 2015년에는 28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이들리브에서였다. 이때는 반군들이 정부군을 몰아내던 시기였다.

2016년에는 23건이 확인됐는데 아사드 정부군이 격전 끝에 탈환한 알레포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2017년에는 17건이, 2018년에는 8건이 각각 확인됐다. 올해 자행된 공격은 대부분 동구타 지역에서였다. 시리아 정부군이 본격적인 탈환 공세를 한 무렵과 일치한다.

이들 106건 가운데 55건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BBC는 많은 경우에서 증거들이 화학무기 공격의 배후로 아사드 정부군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타티브스는 "아사드 정권이 주민들에게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할 때마다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화학무기는 최후의 처벌이자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이 약화했을 때 정권에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예멘 내전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 1만 2천여 명. 최근 한 달간 발생한 급성 전염병 감염자 3만 2,300여 명. 어린이들은 35초에 한 명꼴로 전염병에 걸려 10분에 한 명꼴로 숨지는 곳, 분변에 오염된 물을 매일 식수로 마셔야 하는 곳. 지구에서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은 바로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이다.



-예멘 내전상황1



-예멘 내전상황2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본거지가 있는 이라크나 자국민을 향해 화학무기를 쏘는 시리아, 이른바 '인종 청소' 논란을 빚은 미얀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최악의 인권 범죄국'으로 평가받은 북한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멘을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예멘의 이슬람 시아파 반군 '후티'에도 무기 밀매를 시도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시리아 무기 밀매업자 후세인 알리 등 브로커를 통해 무기와 군사 장비를 예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과 밀매하려고 시도해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란vs이라크 전쟁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며 내세운 명분은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다국적군이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도 결국 대량파괴무기는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던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조롱과 비난 속에 백악관을 떠났다. 그는 2008년 퇴임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임 중 가장 후회스런 일로 "이라크에서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의 실패"를 꼽기도 했다.

그런데 미군이 사실은 이라크에서 신경·수포 가스 작용제를 비롯한 수천기의 화학무기를 발견하고도 이를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화학무기는 핵·생물학 무기와 함께 대량파괴무기에 속한다.

미군은 2004~2011년 대략 5000기에 이르는 사린·겨자 가스 등의 화학탄두, 포탄, 공중투하탄 등을 찾아냈다. 2006년에는 이라크 타지 인근의 전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기지에서 2400기가 넘는 신경작용제 로켓탄을 한꺼번에 '발굴'한 적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 화학무기가 다름 아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 서방은 이란 이슬람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이라크를 편들었다. 수세에 몰린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인근 무탄나에 화학무기 개발 단지를 세워 독가스탄 개발에 나서자 이 또한 거리낌 없이 지원했다. 미군은 무탄나 단지에서 폐기된 겨자가스 로켓탄 2500기를 찾아냈는데, 두 개의 미국 기업이 가스 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탄나 단지 건설은 독일 기업이 맡았다.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스페인 기업이 제작한 공중투하탄과 이집트와 이탈리아산 지대지 로켓탄도 다량 발견됐다.



-화학무기에 대비하여 전투를 준비하는 이라크군 병사

이란과 이라크는 대등하게 싸웠고, 서로의 공세에도 꺾이지 않으며, 전쟁은 지루한 소모전을 반복하는 교착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란의 반격으로 이라크는 점령지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자국 영토까지 뺏기는 수모를 겪었으며, 다급해진 이라크는 이란 군에게 독가스를 사용했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자 스커드 미사일로 이란군과 이란의 민간인 지역을 공격해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이란도 그 보복으로 중국과 북한제 스커드를 수입해 이라크를 향해 쏘대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이라크의 민간인 학살과 화학무기 사용도 목인하였다. 이라크는 이란 민간인을 상대로 사린, 타분, VX 등을 사용하여 최소 5,000여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약 7,000~10,000여 명의 중독자를 내어 영구적인 장애를 야기했다.

일본(옴진리교)사건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일본 도쿄에서 옴진리교가 일으킨 대규모 지하철 화학테러 사건. 세뇌한 광신도를 동원해 도쿄 지하철에서 독가스인 사린을 살포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일본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 옴진리교는 한창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출근 및 등교로 바쁜 러시아워 시간대에 에이단 지하철이 담당하는 노선에서 총 5개 편성을 노려 차량에 대량의 사린 가스를 살포했다. 실행자들은 각각 2명씩 패를 이루어 1명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사린을 담은 비닐봉투에 구멍을 내는 식으로 사린을 살포하고, 다른 1명은 살포자를 태워 도망치는 운전수 역할을 맡았다. 최종적으로 이 테러로 13명이 숨지고 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도쿄 지하철 화학가스 테러로 인한 상황

-마츠모토 시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 사건의 본래 목적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암살하는 것이었다. 당시 옴진리교의 마츠모토시 지부는 마츠모토 시민들에게 퇴거 압력을 받고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었으며, 마츠모토시의 땅 주인들이 옴진리교를 사기죄로 고발한 것까지 걸려있었다. 간부들은 특수 개조한 트럭을 이용해 마츠모토시로 가서 재판소 관사가 있는 지구에 사린 가스를 살포한 후 도주했다. 6월 27일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사린 가스가 살포되면서 총 7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마츠모토 사린 사건이 터지자 한 경찰서장이 익명으로 "마츠모토 사린 사건은 명확히 하나의 실험이다. 열린 공간에서의 실험 성격의 테러사건 결과 8명이 사망하고 6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만약 사린 가스가 밀폐된 공간, 이를테면 혼잡한 지하철 같은 곳에서 살포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제보한 바도 있다.

-협약의 실효성

미국, 러시아, 북한은 세계 3대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그런데, 미국,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가질 수 없다. 반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은 탈퇴했고,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가입한 적이 없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제조 보유할 수 있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라서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미가입국이라서 화학무기 세계 3위라는 식으로 보도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보유량 세계 1위, 2위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는 1987년 가입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태

러시아

2002년 체첸 반군이 러시아의 뮤지컬 극장인 모스크바 문화회관(돔콜트르이)에 침입, 건물을 점령하여 850명의 러시아인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 있었다. 인질극 3일째, 러시아 보안군은 가스를 사용하여 인질 사건을 진압하였으며, 체첸 반군 50명 전원과 120명의 인질이 가스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2002년 10월 30일, 유리 셰브첸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의료용 마취가스인 펜타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효과가 수백 배 이상 강력한 물질로 수술 마취제나 암환자를 위한 진통제로 쓰이며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는 폭동진압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등의 반응은, 러시아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비난 하였다.



-체첸 사태 관련 이미지

미국

2004년 이라크의 팔루자 소탕작전에서 백린(white phosphorous)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1991년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에는,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 지역에서 '화학무기' 백린탄을 살포해 수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해됐다."고 적혀있다. 1980년 유엔재래식무기협약에서는 소이탄, 백린 연막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2004년 팔루자 작전에서 월남전의 네이팜탄의 발전형인 마크77 소이탄과 백린 연막탄을 사용하였다. 팔루자 사건 1년 후인 2005년 11월,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가 팔루자 소탕작전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참전 미군의 증언과 현장의 불탄 민간인 시신들을 보도하면서, 미군이 민간인 학살을 위해 "윌리 피트"라고 부르는 백린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크게 힘을 얻었다. 목격자인 팔루자의 생물학자인 모하메드 타레크도 RAI와 인터뷰에서 "화염이 비오듯이 도시로 떨어져 (화염에) 맞은 사람들은 옷은 그대로인 채 끔찍한 모습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미군은 처음에는 백린 사용을 부인하다가 2005년 11월 15일 국방부 대변인이 적 전투병을 위해 백린이 사용되었다고 시인하였는데, 이 방송내용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화학무기 금지협약 등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면서 사실상의 화학무기급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1) 화학무기의 역사

인류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400년경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발견되는데, 당시 스파르타군이 유황을 연소시켜 발생한 유독가스를 아테네 공격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투에서의 유독가스의 위력은 일찍 알려졌으나, 18세기까지는 독성물질의 대량 제도가 어려워 화학무기 사용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서 화학공업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독성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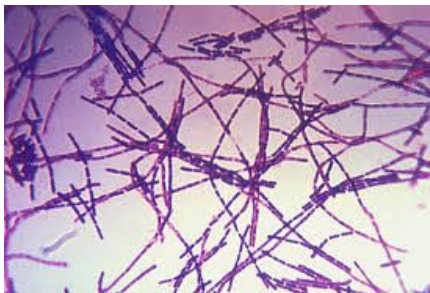
화학무기가 현대전에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4.4.22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레스」에서 영·불 연합군의 방어진지를 유린하기 위하여 염소가스(chlorine)를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제1차 세계대전중 화학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을 경험한 각국은 화학무기 및 방호장비 개발을 서두르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화학 전쟁의 참혹성을 완화하기 위해 1925년에는 「전시에 있어서의 생물·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2) 화학무기의 종류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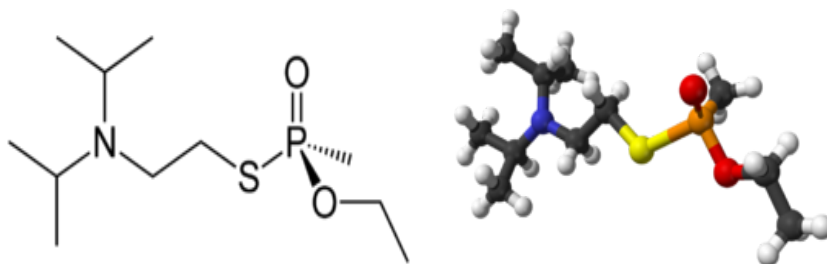
화학무기는 독성 화학물질(원료물질 포함), 그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그리고 이를 목표물에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및 운반수단으로 구성된다. 독성 화학물질은 사망, 상해 또는 일시적 무능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일컬으며, 원료물질은 독성 화학물질 생산의 일부분이 되는 것들을 총칭한다.

-탄저균: 공식명칭 바실러스 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는 흙 속에서 서식하고 건조상태로도 10년 이상 생존 가능하다. 탄저균의 포자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혈액 내의 면역세포에 손상을 입혀서 쇼크를 유발하며, 심하면 급성 사망을 유발시킨다. 발병 후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 1,2차 세계대전에 쓰인 대표적인 생화학무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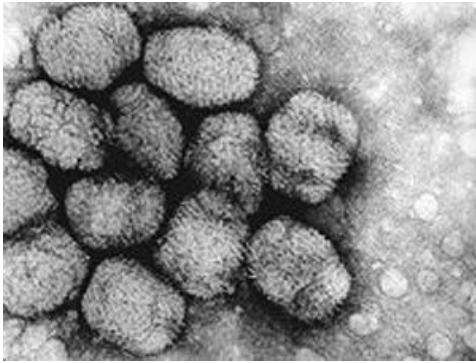
-탄저균

-VX: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무색무취이다. 인체에 침투하는 경로는 호흡기, 직접 섭취, 눈, 피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콧물, 침, 눈물, 다한, 호흡곤란, 시력저하,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계통을 마비시켜 호흡곤란이 오면서 수 분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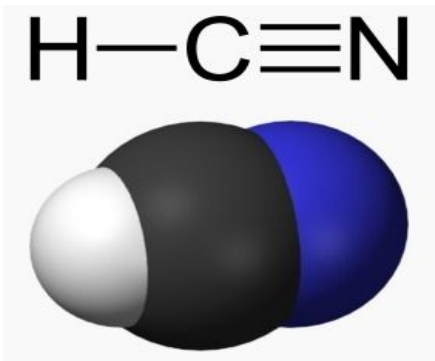
-VX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2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자기 발열과 두통 및 요통이 발생하고, 2일 후에는 발열 수포 능포성 등의 병적인 피부변화가 일어난다. 한 때는 전세계 10%의 사망 원인이었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지만 현재는 근절된 상태이다. 천연두가 근절되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선언 이후 20년 째 천연두 백신의 접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두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치료법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백신만이 유일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천연두에 감염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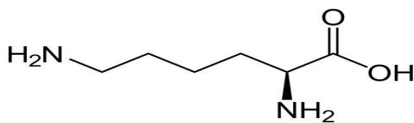
-천연두 바이러스

-**시아나화수소**: 수용성의 맹독의 무색 기체로 물에 녹은 액체 상태를 청산이라 부른다. 시아나화수소산의 염은 생체 내에서 시아나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모두 독성을 지닌다. 이는 쉽게 증발하고 입자가 매우 작아 방독면을 통과하기 때문에 무기로 매우 적합하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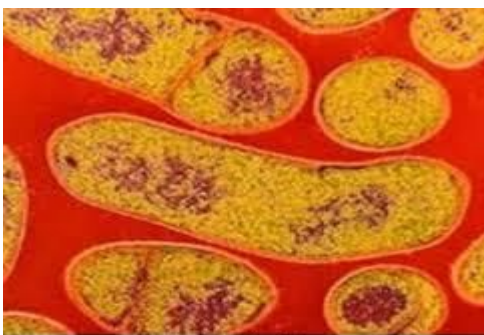
-시아나화수소

-**리신**: 아주까리(피마자) 열매의 독성분으로 자연발생적 생물물질로는 독성이 가장 강한 것중 하나다. 사람이 리신을 상당량 흡입하거나 혈액속에 침투되면 위.폐출혈을 일으켜 72시간안에 사망할 수 있다.



-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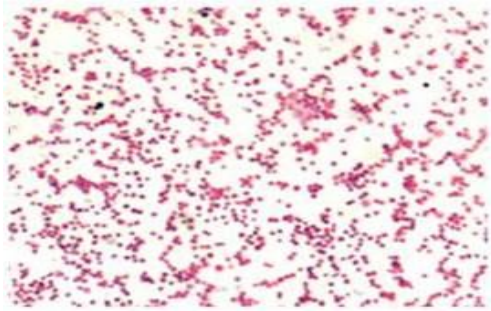
-**보툴리눔균(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보존이 잘 안된 깡통 내용물이나 음식물에서 발육하는 신경독으로 식중독, 구토, 시각.분비.운동장애 등을 일으킨다. 잠복기는 12-72시간으로 항생제가 있으나 일단 중세가 나타나면 별 효과가 없다.



Clostridium botuli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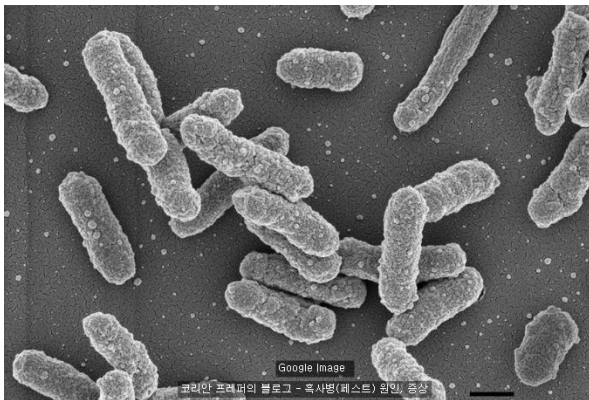
-보툴리눔균

-야토병: 페스트와 유사한 질환으로 파리.벼룩 등에 물리거나 오염된 동물(가축)제품이나 감염동물을 취급할 때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1-14일로 오한.발열.두통.근육통을 동반하며 피부 종창과 결막염.폐렴으로 발병한다.



-야토균

-폐(肺)페스트: 페스트균에 의한 급성 열병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높다. 오한.발열로 시작해 급속히 쇠약해지고 헛소리.두통.구토.설사 등이 일어난다. 사람은 감염된 설치류의 벼룩 또는 사람에게 의해 전염된다. 잠복기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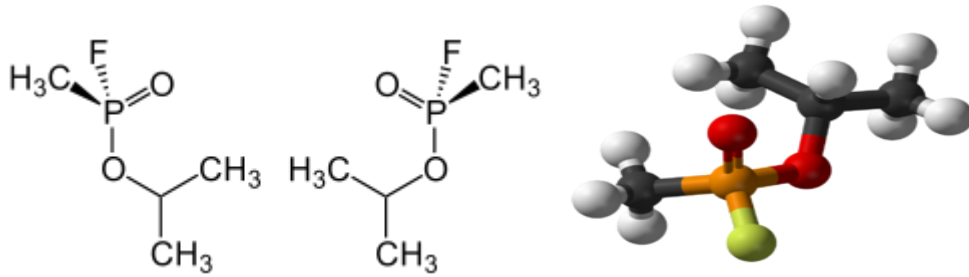


-페스트균

-클로스트리듐 비퍼르멘탄스: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혐기성 세균으로분변, 하수, 토양, 부패한 육류 등에서 발견된다. 상처 등에 균이 침입하면 식중독,괴저, 쇼크, 황달 등의 증세를 일으키고 사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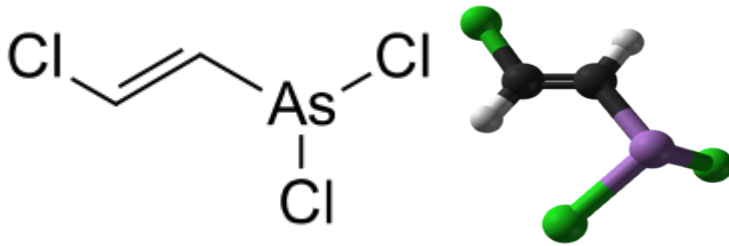
-낙타두창: 낙타의 발진(종기)성 질환으로 인간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는 별로 없으나 이라크가 개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위험하고 불법적인 외국동물병원체로 분류돼 있다.

-사린: 무색.무취의 액체로 살충제 제조와 인명 살상용 신경가스로 사용된다. 휘발성이 아주 강해 공기중에 빠르게 확산되고 공기보다 약 5배정도 무겁기 때문에바닥으로 번진다. 액체의 경우 몸무게 70kg인 사람이 0.7mg이상을 마시면 1분이내에 사망하고 기체의 경우 공기중 농도가 70mg/m³이상이면 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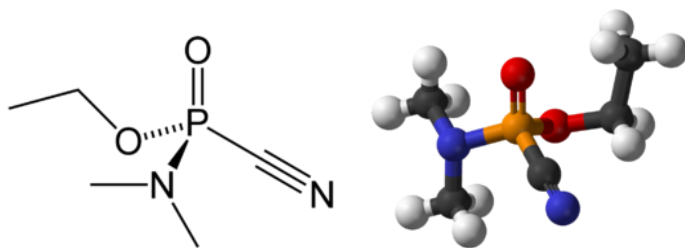
-사린

-소만: 일명 '루이사이트'로 알려진 발포성 독가스로 옛 소련이 상당량 제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휘발성이 강해 공기중에 빠르게 확산되고 흡입으로 중독된다.



-소만

-타분: 독일 화학자 게르하르트 슈라더가 1930년대 발명한 무색 또는 갈색의 액체로 냄새는 없다. 다른 살충제처럼 신경가스로 전환이 쉽다.



-타분

-이페릿: 발포성 독가스로 1차 대전때 처음 사용됐으며 미국, 러시아, 독일, 이라크 등 많은 나라들이 생산했던 대표적 화학무기로 알려져 있다. 눈과 폐를 손상시키고 화상이나 발포 증세가 나타난다.

4. 관련 협약 및 단체

1)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 기구로서, 협약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검증체제를 포함한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며 당사국간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 해당 기구는 협약 발표 직후인 1997년 5월에 헤이그에서 창설되었으며, 총회, 집행이사회, 기술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

총회는 매년 한번 정기회의가 개최되지만, 당사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재정분담금 규모 결정,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 사무총장 임명, 시정 및 제재조치와 같은 주요한 의제를 심의 및 결정하는 부서이다.

-집행 이사회

집행이사회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집행기관으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서구, 동구의 지역그룹에서 선출된 임기 2년의 41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아주그룹 10개 이사국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4-5번 정기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집행이사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집행이사회는 기구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당사국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정 체결, 검증활동 이행과 관련된 시설협정 승인, 총회에 사무총장 후보 추천과 같은 총회가 위임한 다양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사무국

기술사무국은 협약의 일상적인 운영과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다. 기술사무국은 현 사무총장 아래에 200여명의 사찰관을 포함하여 9개국에서 431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주요 기능은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준비, 당사국에 대한 검증활동 이행, 관련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과의 협상, 집행이사회와 총회는 물론이고 당사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의 제공 등이 있다.

-그 외 주요 보조기구

과학자문그룹: 관련 과학적, 기술적 발전 현황을 평가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다. 또 화학물질 목록의 수정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검증방법 및 장비 등 주제를 포함한 기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비밀보호위원회: 당사국간의 비밀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게 주 역할이다.

행정 및 재정 자문그룹: 기술사무국과 당사국들이 프로그램(대체할 단어를 마땅히 못찾았어요)과 예산에 관한 현안들을 조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회동한다. 사무국이 마련한 예산안 초안이 이사회와 총회에 승인 제출되기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화학무기 문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월남전에서 미국이 다량의 고엽제를 사용함에 따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1969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주 내용으로 토의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구소련에서 새로운 정권을 잡아 동,서 냉전의 종식 역시 화학무기 군축 논의에 자극제가 되었다. 협약이 진행되며 화학무기의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소련이 자국이 보유중인 화학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199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자국의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며 밝히며 해당 협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국 1992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7년 발효되었다.

-구성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전문, 본문 24개조, 화학물질부속서, 이행 및 검증부속서, 비밀보호부속서로 이루어진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성격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평등한 군축협약이다. 다른 핵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핵보유국과 핵미보유국을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협약은 당사국들간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약이지만 이 협약은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차별없이 10년 내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생산시설을 폐기 혹은 평화적 목적시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강제사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협약이다. 어느 당사국의 협약준수 여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요청하면 신고 또는 미신고 시설 구별 없이 사찰 통고후 12시간내에 현장을 접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5. 결론

-군비축소를 통한 전쟁억제

국제협정에 의거 규정된 수준까지 병력, 장비, 특수무기와 같은 군비 및 군사체제를 감소하거나 제한하는 군비축소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이번 회의를 통해 모색해보고자한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화학무기를 제한하는 제네바협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은 국지적으로 발효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화학무기의 사용은 비밀비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화학무기의 사용은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큰 국가조차 갈수록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용하고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무분별하게 화학무기가 사용되고있다. 또한 법망을 피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수정하거나 강화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국가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요소를 가하는 등 대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6. 출처 및 용어정리

http://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40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외교부-‘화학무기의 역사와 화학무기 종류의 특성’ 중 일부 2007.10.04)

https://ko.wikipedia.org/wiki/%ED%99%94%ED%95%99_%EB%AC%B4%EA%B8%B0_%EA%B8%88%EC%A7%80_%EC%A1%B0%EC%95%BD

(위키백과-CWC협약의 실효성과 각 국의 실태 중 일부)

http://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38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

“[편람] 유엔 군축위원회(UNDC) 관련 주요 이슈”, 대한민국 외교부, 2007.10.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686&cid=43163&categoryId=43163>

“국제연합(UN) 총회 국제연합 군축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2008

<https://www.un.org/disarmament/institutions/disarmament-commission/>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https://www.un.org/press/en/2018/dc3759.doc.htm>

“At Organizational Meeting, Disarmament Commission Elects Chair, Vice-Chairs for 2018 Substantive Session, Further Adds New Items to Agenda”, United Nations, 2018.02.18

http://www.mofa.go.kr/www/wpge/m_3990/contents.do

“군축, 비확산 국제협력”, 대한민국 외교부

<https://www.opcw.org/>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https://prezi.com/epuikjkgitm_/presentation/ (생물화학무기의 종류와 위험성 2016.07.17)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1/10/007000000200110141052241.html>

(주요 생화학무기의 종류와 증세: 국제: 인터넷한겨레2001.10.1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975&cid=42140&categoryId=42140>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화학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222159445

“시리아군.. 시민에 화학무기 사용” 경향신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312&cid=40942&categoryId=32430>

두산백과 [화학무기]

“시리아 내전 5년간 화학무기 공격 최소 106회” BBC탐사보도, 시리아 관련 이미지3장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5073000009>

“이란-이라크 전쟁”

<https://namu.wiki/w/%EC%9D%B4%EB%9E%80-%EC%9D%B4%EB%9D%BC%ED%81%AC%20%EC%A0%84%EC%9F%81#s-3.1>

“이란-이라크 전쟁” 기사, 자료사진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59940.html>

아사히 “北, 예멘 후티 반군에 무기 밀매 시도...대북 제재 피해를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0784.html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 예멘”, 자료사진2장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86217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https://namu.wiki/w/%EB%8F%84%EC%BF%84%20%EC%A7%80%ED%95%98%EC%B2%A0%20%EC%82%AC%EB%A6%B0%EA%B0%80%EC%8A%A4%20%EC%82%B4%ED%8F%AC%EC%82%AC%EA%B1%B4>

“마츠모토 시 사린가스 살포사건”

<https://namu.wiki/w/%EB%A7%88%EC%B8%A0%EB%AA%A8%ED%86%A0%20%EC%8B%9C%20%EC%82%AC%EB%A6%B0%EA%B0%80%EC%8A%A4%20%EC%82%B4%ED%8F%AC%EC%82%AC%EA%B1%B4>

‘탄저균’ 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A0%80>

VX 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VX_\(%EC%8B%A0%EA%B2%BD%EB%8F%85\)](https://ko.wikipedia.org/wiki/VX_(%EC%8B%A0%EA%B2%BD%EB%8F%85))

‘천연두’ 이미지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62851>

‘시안화수소’ 이미지 출처

<https://conpaper.tistory.com/24796>

‘리신’ 이미지출처

<https://www.gbiosciences.com/Protein-Research/Purification-Chromatography/Immobilized-L-Lysine>

‘보툴리누스균’ 이미지출처

<https://pinkfridays.tistory.com/73>

‘야토균’ 이미지 출처

http://www.jeci.kr/bbs/board.php?bo_table=expert&wr_id=73&page=3

‘페스트균’ 이미지출처

<https://koreanprepper.tistory.com/53>

‘사린’ 이미지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A6%B0>

‘소만(루이사이트) 이미지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3%A8%EC%9D%B4%EC%82%AC%EC%9D%B4%ED%8A%B8>

‘타분’ 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B%B6%84_\(%ED%99%94%ED%95%A9%EB%AC%BC\)](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B%B6%84_(%ED%99%94%ED%95%A9%EB%AC%BC))

‘체첸 사태’ 관련 이미지 출처

<https://smarthack.tistory.com/m/64>

스커드미사일: 지상전투지원용 미사일로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짐.

국지적: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또는 그런 것.

강제사찰: 강제적으로 협약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